# 코로나19와 2022년의 북한경제

**임송**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songlim@bok.or.kr

## Ⅰ. 머리말

2022년은 아마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한 해였을 것이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로 대중수입이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에는 북한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인 격리 조치들이 취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가 북한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자금과 원자재, 생필품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격리 조치는 기업과 협동농장에 대한 노동 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시장활동까지도 제한하게 된다. 자금과 자재 부족에 노동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북한 기업의 생산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 또한 감소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악화되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 12월 초까지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소개된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 그리고 국내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전해 주는 북한시장의 식량가격 변동을 통해 2022년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늠하고 2023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Ⅱ.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

올해 4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 경내에서의 코로나19 발생·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부문별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개년 계획의 첫해인 2021년 2월부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의 매체들은 월초마다 전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경제산업부문[1]과 중요 공장·기업소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2022년도 북한의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이 2021년의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2]

우선 부문별 계획 완수[3]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된 월수는 2021년 8개에서 2022년 4개로, 월간계획을 완수한 부문 수(일부 중복)[4]는 2021년 25개에서 2022년 15개로 대폭 감소했다(표 1).[5]

특히 6월 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5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에 대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5월에도 많은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6]와 같이 북한 경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염두에 두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역으로 해석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문들이 계획을 미달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7] 그 이후 석탄공업, 기계공업, 철도운수부문에서 상반기 계획을 완수했다는 보도[8]를

〈표 1〉 2021년과 2022년 북한의 부문별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월별) 비교

| | 2021년 | 2022년 |
|---|---|---|
| 부문(성) | 화학공업(1월, 2월) 전력공업(1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석탄공업(5월), 기계공업(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철도운수(1월, 4월, 5월, 8월), 채취공업(4월), 경공업(3월, 4월), 임업(2월, 4월, 9월) | 금속공업(1월), 화학공업(1월), 전력공업(1월, 2월, 5월), 석탄공업(5월, 6월), 기계공업(5월, 6월), 철도운수(5월, 6월), 경공업(2월), 임업(2월, 5월), 수산(2월) |
| 합계 | 25개 | 15개 |

자료: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음영으로 표시한 월은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내용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1)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등 북한의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내각의 부처(성), 북한 내각에는 2021년 기준 43개 부처(위원회, 성 등)가 있으며(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이해』, 2022, p.73) 그중 16개의 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기사를 통해 월 계획을 완수한 부문(성)과 중요 공장·기업소들을 소개하는데, 본고에서는 부문별 계획 완수에 관한 기사만 집계했다.
3) 북한 매체들에서는 부문별 계획이 완수된 경우에는 "○○○성이 성적인 ○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또는 "○○○부문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문 전체가 아닌 일부 기업들이 계획을 완수한 경우에는 "○○○부문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또는 "○○○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등의 표현을 사용한 뒤에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를 기재한다.
4) 월별 실적 외에 분기 또는 상반기 실적도 간혹 소개되는데, 월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는 소개되지 않다가 분기 또는 상반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소개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또는 상반기 마지막 월의 계획을 초과 완수함으로써 분기 또는 상반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았다.
5) 2021년은 1월(3개), 2월(2개), 3월(1개), 4월(6개), 5월(4개), 7월(1개), 8월(3개), 9월(3개), 10월(2개)이며 2022년은 1월(3개), 2월(4개), 5월(5개), 6월(3개)이다.
6)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5월에도 많은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장, 작업반들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였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노동신문』,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2022. 6. 2).
7) 한편,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한 5월 인민경제계획 수행 관련 기사에서 월 계획을 완수한 부문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기계공업, 임업의 5개 부문이다(『조선중앙통신』,「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5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2022. 6. 2).
8) 「노동신문」, 「[기간공업부문]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석탄, 기계공업, 철도운수부문에서」, 2022. 7. 6.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가 아닌 부문별 계획 완수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7월과 8월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관련한 노동신문의 기사[9]에서는 개별적인 공장·기업소의 계획 완수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물론 북한 매체의 기사들이 북한의 부문별 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또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게재된 기사 내용이나 게재 빈도 등으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올해 4월 말부터 북한 경내에서 발생·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계획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상반기, 연간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 계획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돌발적인 비상방역사태 속에서 안정과 발전속도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로 언급하는 정도로 그친다.[10] 2021년 상반기 공업총생산액 실적을 계획 대비 144%, 전년도 동기 대비 12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밝혔던 것[11]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회의에서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는 2021년 북한의 인민경제계획 수행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도 연간 실물지표계획 달성률 석탄공업(석탄생산계획) 101%, 철도운수(화물수송계획) 102%, 건재공업(시멘트생산계획) 109%를 포함하여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로 초과 수행한 것으로 발표했다.[12] 올해의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 Ⅲ. 시장의 식량가격 변동

올해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가격 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등락폭이 좁아진 것이다. [그림 2]는 SPN 서울평양뉴스가 전해주는 북한의 평양, 원산, 사리원, 해주 4개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옥수수, 밀가루의 4개 도시 평균가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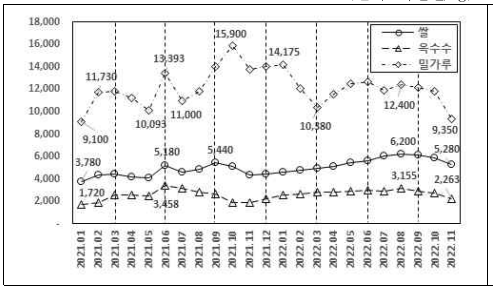
9) 『노동신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며 계속 혁신: 기간공업부문의 많은 단위에서 상반년 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7월 인민경제계획 수행」, 2022. 8. 3; 『노동신문』,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8월계획 완수」, 2022. 9. 3.
10)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2. 6. 11.
11)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회」, 2021. 6. 16.
12)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김덕훈총리)」, 2022. 2. 8.

전월 대비 변동률을 보여준다. 변동폭이 가장 큰 옥수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는 최대 +39.8%(6월), 최소 -28.2%(10월)인 데 반해 올해는 최대 +16.2%(1월), 최소 -18.8%(11월)로 등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올해 들어 가격 등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은 쌀, 밀가루 모두 거의 동일하다.

식량가격 변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쌀과 옥수수 가격이 2021년에는 1~2개월을 주기로 등락이 반복되고 특히 3월과 6월에 20~30%이상 급등하는 등 가격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는 소폭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9월 이후로는 완만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그림 1 및 그림 2). 밀가루 가격은 올해 들어 4월과 5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림 1] 북한시장의 식량가격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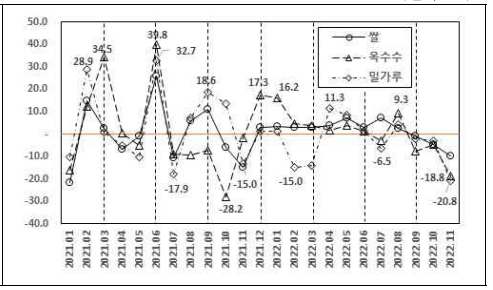
(단위: 북한원/kg)




자료: SPN 서울평양뉴스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식량가격 변동률(전월 대비)

(단위: %)




자료: SPN 서울평양뉴스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처럼 올해 식량가격이 작년에 비해 등락폭이 축소되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상승률은 낮아져 작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우선 북한주민들의 소득 감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격리, 시장 운영 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되면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다. 구매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격(호가)이 상승해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2020~21년 기간 상승으로 형성된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즉, 과거에 비해 감소한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유효수요와 부족한 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이 지금의 가격이다.

식량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적인 다른 하나의 이유는 2021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농진청이 발표하는 2021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69.2만톤으로 2020년 439.8만톤에 비해 6.7%(29.4만톤) 증가했다.[13] 여전히 식량 공급이 부족한

13) 농진청이 발표하는 곡물생산량은 당해 연도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된 곡물수확량으로 이듬해 식량공급량과는 차이가 있다. FAO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된 곡물수확량이 이듬해 식량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FAO에서 2021/2022년도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농진청 발표자료를 참고해 사용했다.

건 맞지만, 그래서 여전히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곡물생산량 증가가 전년도 대비 시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킨 것이다.

밀가루 가격의 변동은 식용유, 설탕 등 주로 대중수입에 의존하는 기초 식료품 가격과 대략 일치한다. 2년간 중단되었던 북중 열차운행이 재개(2022. 1. 16)되고 나서 1~4월간 하락했던 수입 식료품 가격들이 코로나19 발생(2022. 5)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가 9월 말에 열차운행이 재개되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다.

## Ⅳ. 2023년도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올해 북한 경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2021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다만, 올해 9월 말부터 북중 열차운행이 재개되면서 대중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열차운행 재개 직후 10월의 대중수입은 1.47억달러로 9월(1.04억달러) 대비 40.6%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북중국경을 봉쇄한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이다.[14] 서두에 서술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에는 자체 봉쇄로 인한 수입원자재와 생필품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북중무역이 재개되어 대중수입이 2020년 1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23년의 경제상황은 최근과는 달리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은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북중국경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최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비롯한 북러간 경협 확대도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대중수입은 2020년 1월 1.97억달러에서 북중국경을 봉쇄한 2020년 2월에는 0.1억달러로 94.6% 급감했다.

# 2022년 북한경제 동향 및 2023년 전망: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을 중심으로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hzang@hanyang.ac.kr

대부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외화 수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국제수지(외화 수급)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외화보유액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외부에서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일정 시점의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화 수급을 매년 추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북한의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에 관한 연구로는 장형수(2009; 2013; 2021), 장형수·김석진(2019), Zang(202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북한의 외화 사정이 항상 '매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제법 괴리가 있다. 첫째,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추세적으로 외화를 축적해 왔다. 둘째, 북한의 외화 축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화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북한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급감하게 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응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7년부터 북한의 수출은 그야말로 급감한다. 2019년의 북한 수출은 2016년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화수입이 20억달러 넘게 급락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수입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2016년 37억달러에서 2019년에도 30억달러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9억달러에서 2019년에는 27억달러로 급증한다.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도 2016년 1억달러 적자에서 2019년에는 12억달러 적자로 폭증한다. 북한은 2017~19년 3년간 무려 70억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이 무역적자의 5% 이상을 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2018~19년 기간에는 무역적자의 25% 이상, 그리고 2020년에는 북한 무역적자의 47%가 불법 외화수입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19년 3년간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 수급 적자는 30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북한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외화 수급 적자이다.

〈표 1〉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16~20년)

(단위: 백만달러)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상품 수출 | 2,821 | 1,772 | 243 | 278 | 89 |
| 상품 수입 | 3,726 | 3,778 | 2,601 | 2,967 | 774 |
| 무역수지(대외) | -905 | -2,006 | -2,358 | -2,689 | -684 |
| 거래성수지(남한) | 0 | 0 | 0 | 0 | 0 |
| 서비스수지 | 206 | 223 | 181 | 203 | 55 |
| 소득수지 | 263 | 245 | 232 | 165 | 59 |
| 경상이전수지 | 79 | 75 | 127 | 117 | 33 |
| 자본수지 | 194 | 215 | 305 | 286 | 219 |
| 무기수지/불법거래 | 52 | 425 | 597 | 711 | 322 |
| 외화수지(수급) | -111 | -825 | -916 | -1,206 | 3 |
| 외화수급 누적액[1)] | 3,167 | 2,342 | 1,426 | 219 | 222 |

주: 1) 1990년 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각 연도의 외화 수지(수급)를 누적시킨 것임. 예를 들어 2016년의 외화 수급 누적액은 1990년 말과 비교하여 2016년 말에 외화가 31.67억달러만큼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장형수(2021).

이처럼 2017~19년 3년간 북한의 외화 수급 양상은 2017년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급감하는 수출을 보고도 수입을 그에 맞춰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로 인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북한은 2017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해 놓았다'는 것이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자마자 북한은 발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끊어 버렸다. 왜 이렇게 북한이 재빠르게 움직였나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2020년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20억달러나 줄어들었고 그 해 최종적인 외화 수급은 거의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2017~19년 3년간의

평균 외화 수급 적자액 만큼인 2020년도 외화보유액 감소분 10억달러를 아끼게 된 것이다. 장형수・김석진(2019)과 장형수(2021)는 기존 연구들의 1992~2020년 외화 수급 누적액과 1991년 말 외화보유액 가정을 이용하여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달러에서 최대 50억달러, 중간치는 약 34억달러로 추정하였다.

〈표 2〉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

(단위: 백만달러)

| | 외화보유액 최소치[1)] | 중간치 | 외화보유액 최대치[2)] | 외화수급 누적액[3)] | KDI 수정통계 추가액 | 1990년 말 외화보유액 범위 |
|---|---|---|---|---|---|---|
| 2011년 말 | 4,019 | 5,669 | 7,319 | 2,519 | 0~2,300 | 1,500~2,500 |
| 2012년 말 | 4,416 | 6,066 | 7,716 | 2,916 | 0~2,300 | 1,500~2,500 |
| 2013년 말 | 4,817 | 6,467 | 8,117 | 3,317 | 0~2,300 | 1,500~2,500 |
| 2014년 말 | 4,703 | 6,354 | 8,003 | 3,203 | 0~2,300 | 1,500~2,500 |
| 2015년 말 | 4,778 | 6,428 | 8,078 | 3,278 | 0~2,300 | 1,500~2,500 |
| 2016년 말 | 4,667 | 6,317 | 7,967 | 3,167 | 0~2,300 | 1,500~2,500 |
| 2017년 말 | 3,842 | 5,492 | 7,142 | 2,342 | 0~2,300 | 1,500~2,500 |
| 2018년 말 | 2,926 | 4,576 | 6,226 | 1,426 | 0~2,300 | 1,500~2,500 |
| 2019년 말 | 1,719 | 3,369 | 5,019 | 219 | 0~2,300 | 1,500~2,500 |
| 2020년 말 | 1,722 | 3,372 | 5,022 | 222 | 0~2,300 | 1,500~2,500 |

주: 1) 북한의 외화보유액 최소치 = 외화 수급 누적액 + 1990년 말 외화보유액 최소치
2) 북한의 외화보유액 최대치 = 외화 수급 누적액 + KDI 수정통계 추가액 최대치 + 1990년 말 외화보유액 최대치.
3) 1990년 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각 연도의 외화 수지(수급)를 누적시킨 것임.
자료: 장형수(2021).

향후 북한이 대북제재를 얼마나 '우아하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가장 귀중한 정보는 북한의 2021년과 2022년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중순 현재 그래도 2021년도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2022년 추정치와 2023년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북한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최근의 북한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을 큰 그림에서 추측해 보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2021년에 강화된 국경봉쇄로 인해 발생한 북한의 무역적자는 5.49억달러로 2020년보다 줄어들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원유를 제외한 무역적자는 1.86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 수입원에 대한 유엔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UNSC 2022a; 2022b)의 내용을 활용하고 기타 일상적인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2021년 외화 수급은 '최소' 2~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수입 추정 결과에 따라 북한의 2021년 실제 흑자 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한편 2022년 10월까지 중국 해관에 기록된 원유 수입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5.5억달러로 2021년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2년이나 지속된 국경봉쇄를 올해 들어오면서 다소 완화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역적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부분 초래되고 기타 국가로부터는 흑자 내지 균형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적자는 전년보다 늘어난 5~6억달러로 추측된다. 2022년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 수급은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석탄과 어업권 등의 불법매매에서 얻는 외화 수입의 규모에 달려 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범죄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으로 북한이 확보한 외화의 규모가 실제로 전년보다 늘어났는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2022년 북한의 외화 수급을 소폭의 적자~균형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의 북한 외화 수급에 대한 '매우 잠정적인 추측' 결과,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의 외화 수급 전망은 우선 3년 동안 억제되었던 수입 수요를 북한 당국이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지, 전통적인 외화 수입원과 불법행위로부터의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북한의 대중 경제교류의 범위와 규모를 좌우할 것이다. 이처럼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추리 소설을 쓰는 것과 거의 같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9, pp.1~48.

_____,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pp.165~190.

_____,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1, 2021년 12월, 180-205.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22권 제1호, 2019년 4월, pp.8~4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S/2022/668, 2022a.

_____,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22/132, 2022b.

Zang, Hyoungsoo, "What the Estimates of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 of North Koreans Would Tell Us," KDI Working Pap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July 2020.